

패배로 출발한 한국 야구대표팀, 결국 3개 대회 연속 1R 탈락

2013·2017년 이어 또다시 1차전 패배 극복 못해

1차전 호주에 7-8패배·2차전 일본에 4-13 완패

패배로 시작한 한국 야구대표팀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결과는 1라운드 탈락으로 늘 같았다.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다. 호주와 1차전에서 한국은 결국 8강행이 좌절됐다. 이로써 3개 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다.

호주는 13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WBC 1라운드 B조 체코와 경기에서 8-3으로 이겼다.

이로써 3승1패를 거둔 호주는 B조 2위로 1위 일본(4승)과 함께 다음 라운드로 넘어간다.

반면 한국은 이날 오후 남은 중국전에서 승리하더라도 2승2패에 그치게 돼 8강 진출이 좌절됐다.

14년 만의 4강을 야심차게 외쳤던 목표는 처참하게 스러졌다.

이번에도 1차전 패배가 치명타가 됐다. 한국은 지난 9일 벌어진 2023 WBC 1라운드 B조 1차전 호주와 경기에서 7-8로 졌다.

단기전에서 첫 판을 내준 대표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다. 위기에서 투입된 베테랑 양현종마저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홈런을 맞는 등 믿었던 투수들까지 흔들

려 불안감을 배가시켰다.

첫 상대인 호주를 잡고 부담스러운 일본과의 두 번째 경기까지 기세를 잇겠다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다.

'1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던 호주전에서 한국은 위기 속에 치른 10일 일본전에서는 4-13 완패를 당해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게 됐다.

마운드는 8개의 볼넷과 1개의 몸에 맞는 공 등 9개 사사구를 남발하며 위기를 자초했고, 타선은 6안타(2홈런)로 일본 마운드에 묶였다.

경쟁팀들에 연거푸 승리를 헌납한 한국은 3차전 체코전을 잡았지만 8강행 티켓을 얻기엔 역부족이었다.

한국은 초대대회였던 2006 WBC에서 4강 신화를 이루고, 2009 WBC 준우승으로 한국야구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러나 2013 WBC, 2017 WBC에서 연달아 1라운드 탈락 고배를 마셨다.

두 대회 모두 1라운드 1차전 패배가 결정적이었다.

2013 WBC에서 '한 수 아래'로 여겨던 네덜란드에 1차전 0-5 패배를 당한 한국은 조별리



10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2023 B조 일본과 대한민국의 경기, 대표팀 선수들이 4:13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 덕아웃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그 2승1패를 기록하고도 1라운드에서 탈락했다. 2017 WBC에서는 야구 변방으로 평가한 이스라엘에 1-2로 졌다. 한국은 또 다시 1승2패로 조별리그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두 번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한국은 이번 대회만큼은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

서도 1차전에 패한 한국은 1라운드 만에 짐을 싣는다.

뉴스



(왼쪽부터) 구창모·이의리·소형준

한국 야구 대표팀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통해 마운드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그간 대표팀 에이스 역할을 해온 김광현(SSG 랜더스), 양현종(KIA 타이거즈)을 이을 후계자를 찾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영건들이 잇단 부진을 보이면서 세대교체 목표는 물거품이 됐다.

이강철 감독과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회는 세대교체를 염두에 두고 이번 WBC 대표팀 명단을 구성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

한 김광현, 양현종이 발탁된 가운데 '영건'이 대거 승선했다. 대표팀 투수진에서 김광현과 양현종, 이용찬(NC 다이노스), 김원준(롯데 자이언츠), 고영표(KT 위즈)를 제외하면 모두 20세대.

이의리(KIA 타이거즈)가 2002년생으로 투수, 야수를 통틀어 가장 막내다. 2001년생 소형준(KT), 2000년생 김윤식(LG 트윈스), 원태인(삼성 라이온즈), 1999년생인 곽빈, 정철원(이상 두산 베어스)과 정우영(LG), 1998년생 고우석(LG), 1997년생 구창모(NC)가 대표팀에 선발됐다.

영건들 부진...마운드 세대교체 목표도 물거품

구창모·이의리·소형준 등 아쉬운 모습...마운드 처참히 붕괴

젊은 선수들은 큰 대회를 치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감독과 KBO 기술위원회는 향후 한국 마운드를 이끌어줘야 하는 영건들이 김광현, 양현종 등 베테랑들에게 경험을 전수받으며 성장세를 보이길 바랐다.

하지만 영건들이 WBC 무대에서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차세대 에이스 발굴도 수포로 돌아갔다.

향후 대표팀 선발진의 한 축을 이뤄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 우완 소형준은 호주와의 경기에서 구원 등판했으나 1/3이닝 1피안타 2실점으로 흔들렸다. 7회 등판해 몸에 맞는 공과 안타, 희생번트를 허용하면서 1사 2, 3루의 위기를 만든 채 마운드를 내려갔다.

일본전에서는 곽빈, 정철원, 김윤식, 구창모, 이의리가 마운드에 올랐는데 모두 실점하며 흔들렸다.

특히 6회 무사 3루 상황에 등판한 김윤식은 볼넷 2개와 몸에 맞는 공 1개를 내주며 극심한

제구 난조를 보인 후 강판됐다. 점수차가 10-4까지 벌어진 6회 1사 1, 2루 상황에 등판한 정우영은 오카모토 가스마에 적시타를 맞으며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 7회에는 구창모가 마운드에 올랐지만, 나카 다쿠무, 라스 노바에 안타를 맞아 1사 1, 2루에 몰렸다. 한국은 마운드를 이의리로 교체했지만, 이의리는 볼넷을 3개나 내주면서 무너졌다.

'야구 변방' 체코와의 경기에서는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곽빈이 1/3이닝 2피안타 2실점으로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원태인이 두 차례 등판에서 3/3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것이 대표팀에 작은 위안이었다. 이번에도 대표팀에 발탁된 영건들은 KBO리그에서 최고 유망주로 평가를 받는다. 최정상급 기량을 보여줬기에 대표팀에도 승선했다.

하지만 경험 부족, 공인구 부적응, 컨디션 난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국제 무대에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영건들에게 기대했던 패기 넘치는 투구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제구 난조 속에 자멸하는 모습만 보였다.

젊은 투수들의 부진 속에 한국 마운드는 처참히 붕괴됐다. 한국의 3경기 팀 평균자책점은 8.31에 달한다.

이번 대회 4전 전승을 거둔 일본은 사사키 로키(지바 롯데 마린스)가 체코전에 선발 등판해 3/3이닝 동안 8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2피안타 1실점(비자책점)으로 호투하는 등 영건 발골에도 성공했다. 한국으로선 부러울 따름이다.

일본 야구 평론가인 사토자키 도모야는 한 일전에서 한국이 4-13으로 대패한 후 "한국 리그는 주력 투수가 거의 외국인 선수다. 에이스는 커녕 KBO리그에서 자국 투수를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무척이나 뼈아픈 지적이다.

이 감독은 '볼펜에 젊은 투수가 많은데, 일본전 패배 후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있느냐'는 MLB닷컴 기자의 질문에 "이 선수들이 앞으로 성장해 한국 야구를 이끌어줘야 한다.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기회로 여기고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클린스만호 1기 명단 공개...월드컵멤버 2명 빼고 합류

20일 파주NFC 소집...24일 콜롬비아·28일 우루과이와 A매치 2연전



클린스만호 1기 명단이 공개됐다. 2022 카타르월드컵 최종 명단 26명 중 24명이 그대로 선발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3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26명의 소집명단을 13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파울루 벤투 감독의 후임으로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해 지난 카타르월드컵에 나섰던 선수들을 대부분 선발했다.

손흥민(토트넘), 김민재(나폴리), 이강인(마요르카), 황희찬(울버햄튼) 등 유럽과와

황의조(서울), 조규성(전북), 김영권(울산) 등 핵심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벤투호와 비교해 두 명이 바뀌었다. 부상 중인 윤종규(서울), 홍철(대구)이 빠지고 카타르월드컵에 27번째 예비 선수로 참가했던 공격수 오현규(셀틱)와 수비수 이기제(수원)가 뺏겼다.

최전방 공격수 오현규는 월드컵 직전인 지난해 11월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 출전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그는 당시 안와골절상으로 월드컵 출전이

◇남자 축구대표팀 3월 소집명단(총 26명)

- ▲골키퍼: 김승규(알사범) 조현우(울산) 송병민(소난밸리)
- ▲수비수: 김민재(나폴리) 김영권, 김태환(이상 울산) 권경원(강바오사카) 조유민(대전) 김민환, 김진수(이상 전북) 이기제(수원)
- ▲미드필드: 정우영(알사범) 손준호(산둥타이산) 백승호, 송민규(이상 전북) 황인범(울림피아코스) 이재성(마인츠) 권창훈(김천상무)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이강인(마요르카)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나상호(서울)
- ▲공격수: 황의조(서울) 조규성(전북) 오현규(셀틱)

불명명했던 손흥민의 대체 선수로 카타르 현지에서 동행했으나, 손흥민이 정상적으로 출전하면서 최종 엔트리에는 들지 못했다.

원발잡이 측면 수비수 이기제는 2021년 6월 열린 카타르월드컵 2차예선 투르크메니스탄과 스리랑카전에 출전한 바 있다.

클린스만호 1기는 오는 20일 파주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소집돼 24일 콜롬비아(울산문수축구경기장), 28일 우루과이(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A매치 2연전을 치른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콜롬비아는 17위, 우루과이는 16위로 한국(25위)보다 높다.

역대 전적에서 콜롬비아에는 4승2무1패로 앞서지만, 우루과이에는 1승2무6패로 열세다.

그리스 리그 '2월의 선수' 황인범 소속팀 올림피아코스 완승 지휘

승점 56(16승8무2패) 3위 유지

그리스 프로축구 2월의 선수로 선정된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이 소속팀 올림피아코스의 완승에 앞장섰다.

올림피아코스는 13일(한국시간) 그리스 아테네의 OPAP 아레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수페르리가 엘라다 26라운드 AEK 아테네와 원정 경기에서 3-1로 승리했다.

올림피아코스는 후반 5분 상대 자책골로 앞서 나간 뒤 후반 8분 세드리크 바캄부의 추가골로 승기를 잡았다.

올림피아코스는 후반 22분 세드리크 카노스의 썬기골로 후반 36분 슈테펜 추버가 한 골을 만회한 데 그친 아테네의 추격을 뿌리쳤다.

이로써 지난달 10일 그리스컵 4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아테네에 0-3 완패를 당했던 올림피아코스는 이날 승리로 설욕에 성공했다.

승점 56(16승8무2패)이 된 올림피아코스는 3위를 유지했다.

올림피아코스에 진 아테네는 2위(승점 59)로 내려왔다. 선두는 파나티나이코스(승점 61)다.

정규리그를 마친 올림피아코스는 스플릿 라운드에 들어간다. 수페르리가 엘라다는 14팀이 26라운드까지 정규리그를 치른 뒤 상위 6팀과 하위 8팀으로 나뉘어 플레이오프 라운드를 통해 펼쳐 우승



팀과 유럽클럽대항전 진출팀을 가린다. 이날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황인범은 후반 추가시간 교체됐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중원을 지휘하며 승리를 견인했다.

올림피아코스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황인범은 지난 10일 수페르리가 엘라다 공식 2월의 선수에 뽑히기도 했다.

한편 황인범은 이날 위르겐 클린스만 새 축구대표팀 감독이 발표한 3월 소집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